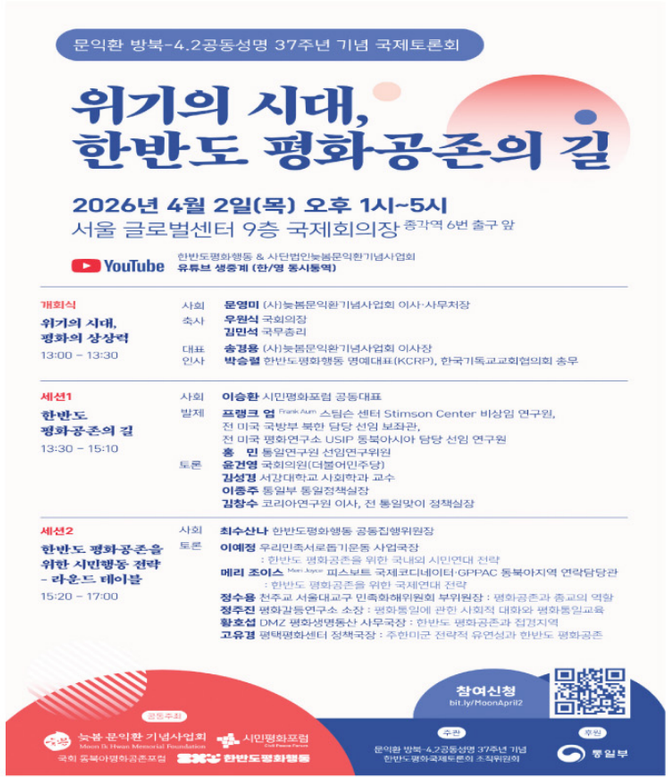
위기의 시대,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 모색

4월 2일(목) 오후 1시부터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한반도평화행동(명예대표 박승렬)과 사단법인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이사장 송경용)는 오는 4월 2일(목)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글로벌센터(종각역 6번출구 앞) 9층 국제회의실에서 '위기의 시대,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갖는다.



이어지는 세션1은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의 사회, 프랭크 엄 스팀슨센터 비상임연구원(전 미국 국방부 북한 담당 선임보좌관, 전 미국 평화연구소 USIP 동북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과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발제 후, 윤건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경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이종주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이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이어지는 세션2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시민행동 전략-라운드 테이블'로 3시 20분부터 5시까지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다.

세션2는 최수산나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이예정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업국장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국내외 시민연대 전략'을, 메리조이스 피스보트 국제코디네이터·GPPAC 동북아지역 연락담당관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국제연대전략'을, 정수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이 '평화공존과 종교의 역할'에 대해,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장이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평화통일교육에 대해, 황호섭 DMZ 평화생명동산 사무국장이 '한반도 평화공존과 접경지역'에 대하여, 고유경 평택평화센터 정책국장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 평화공존'에 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광주의 어머니' 소심당 조아라 기념관

현충시설 지정·호신대와 활성화협정 체결도

'광주의 어머니' 소심당(素心堂) 조아라 선생의 삶과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조아라기념관이 국가보훈부 지정 현충시설로 공식 지정된 데 이어, 지역 학계와 손잡고 현충시설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조아라기념관이 국가보훈부 지정 현충시설로 공식 지정된 데 이어, 호남신학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충시설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 2025년 12월 22일, 국가공인 '현충시설' 지정

소심당(素心當) 조아라기념관은 지난 2025년 12월 22일 국가보훈부로부터 현충시설로 공식 지정되었다. 현충시설은 조국의 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리기 위해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시설이다.

이번 지정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부터 1980년 5·18민주화운동 수습대책위원 활동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민주·인권·여성의 권익과 향상에 헌신한 조아라 선생의 숭고한 삶이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높이 평가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 2026년 3월 17일, 호남신학대학교와 현충시설 활성화 협정 체결

이번 호남신학대학교와 협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현충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교류 및 체험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현충시설 및 그 주변에 대한 환경정화 활동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추진 ▲현충시설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을 예정이다.

■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는 조아라 기념관

조아라기념관은 이번 현충시설 지정과 협력체결을 계기로 단순 전시공간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기념관 관계자는 "지역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시작으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보훈문화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소심당(素心堂) 조아라 기념관 이용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46번길 3-6(양림동)
- 운영시간: 화요일~일요일(9:00~18:00)
- 휴무일: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 주요전시 : 조아라 선생 유품, 활동사진, 독립운동가 조아라 상설전시
- 문의 : 062)682-8682

광주 고려인마을, 청소년 체험형 역사·문화 골목여행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한 참여형 교육 모델 12월까지 운영

'역사마을 1번지' 광주 고려인마을이 광주 광산구와 손잡고 청소년 대상 체험형 역사·문화 교육프로그램인 '고려인마을 청소년 역사·문화 골목여행'을 본격 운영한다.

지난 3월 28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광산구와의 협력을 통해 고려인마을이 보유한 역사·문화 자산을 교육 콘텐츠로 활용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삶과 역사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려인마을 청소년 역사 문화 골목여행'은 12월까지 국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단순한 견학을 넘어 참여형 체험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은 고려인마을 일원을 중심으로 ▲월곡고려인문화관 '결' 전시 관람 및 전문 해설 ▲고려인마을 해설사와 함께하는 골목투어 ▲역사 교구 체험 및 놀이형 학습 ▲중앙아시아 전통 의복 체험 ▲마트료시카를 활용한 문화·요리 체험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학년별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돼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고려인의 이주 역사와 정착 과정, 그리고 공동체 문화에 대해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 고려인마을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고려인 동포들이 걸어온 한 세기의 디아스포라 역사를 살아 있는 교육 현장으로 풀어낸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책이 아닌 현장에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 선조들의 피어린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 고려인마을이 광주 광산구와 손잡고 청소년 대상 체험형 역사·문화 교육프로그램인 '고려인마을 청소년 역사·문화 골목여행'을 본격 운영한다.

이어 "광산구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맞춰 돌봄목회 집중과정 현장실습

기한침, 장헌일 박사 강사 초청 2차 정책포럼 모임 가져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총회장 최인수 목사)가 주최하고 돌봄통합전문기관 (사)월드뷰티핸즈와 (사)해돋는마을이 협력한 가운데 돌봄목회 집중과정이 진행 됐다.

돌봄목회 집중과정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돌봄목회' 정책 포럼을 통해 통합돌봄 모델을 커뮤니티 케어 관점에서 개발하고자 개설됐다.

이번 과정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이번 2차 모임 포럼 회원들은 3월 12일 마포구 신생명나무교회, 엘드림통합돌봄센터에서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신생명나무교회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엘드림대학(학장 최에스더 교수, 신한대)이 운영하는 무료급식(밥퍼)과 엘드림노인대학 고독생프로젝트에 참여해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최인수 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교회에 모범이 될 돌봄통합센터 모델을 총회 차원에서 돌봄목회 정책개발과 시행을 준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한국교회가 섬김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돌봄에 적극 참여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 했다.

장헌일 박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린 돌봄목회 집중과정 현장실습 강의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가 장헌일 박사.

"전쟁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생명의 살롬으로"

중동 전쟁의 즉각적 중단과 평화 회복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호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은 더 이상 지역 분쟁에 머물지 않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국제 위기로 번지고 있다. 군사시설을 넘어 민간 지역까지 공격이 확산되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변 국가들까지 긴장이 고조되어 중동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까지 중첩되면서 사태가 세계적 규모의 충돌로 비화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사태를 깊은 우려 속에 주시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밝힌다.

첫째, 모든 군사적 공격과 보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사태는 외교와 국제적 중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힘의 충돌은 또 다른 폭력과 증오를 낳을 뿐이며, 그 희생은 언제나 민간인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마태복음 26:52)고 말씀하셨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적 확전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 그리고 신뢰 회복이다. 동시에 국제사회는 이란만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중동에서 핵무기를 개발·배치·사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국제적 약속과 상호 검증 가능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둘째, 어떠한 군사적 명분으로도 민간인의 생명을 해치는 전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전쟁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이들은 어린이와 노인, 여성과 장애인, 난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실제로 2026년 2월 28일 이란 미나브의 초등학교 공습에서는 학생 150명이 숨지고, 교직원을 포함한 전체 희생자는 최소 175명에 이른다고 한다. 학교와 병원, 주거지 같은 민간 시설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인간 존엄을 근본에서 파괴하는 일이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한다(창세기 1:27). 그러므로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전쟁 전략의 부수적 피해로 취급될 수 없다. 모든 군사 당사자는 국제 인도주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한국교회는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야 한다.

교회는 특정 국가의 군사 전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신앙의 이름으로 미화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일부 한국교회에서는 이스라엘 보호(창 12:3)와 종말론적 해석(에스겔 38,39장 등)을 근거로 이번 전쟁을 지지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이스라엘과 현대 국가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신학적 비약이며, 성경의 종말론을 함부로 오용하는 매우 참람하고 위험한 시도다.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참전 요구 앞에서 한국교회는 전쟁의 논리를 추종할 게 아니라, 고난받는 이들과 연대하며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의 한국군 파병도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평화를 증언하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무기가 아니라 더 깊은 평화의 지혜이다. 군사적 강압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없다. 당사국들은 즉각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정의와 화해를 향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갈등과 분열 속에서 생명과 평화, 화해의 가치를 증언하는 공동체로 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전쟁을 멈추고 생명을 살리는 길만이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2026년 3월 23일

제 안 : 건강한 교회와 사회포럼(상임대표 이박행)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공동대표 구교형)

연대단체 (총 57개, 가나다순)

건강한 교회와 사회 포럼, 경산 복민교회-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광주기독단체연합회, 광교산울교회, 광주서정교회, 광주YMCA, 광주YWCA,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를 위한 신학포럼, 기독교민주시민모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느헤미야교회협의회, 대구기쁨의교회, 대구다온교회,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누가교회, 대구평화교회/이주민선교센터, 대구드림교회, 대구만남의교회, 대구바보교회, 대구위드교회, 대구커다란숲교회, 미션21, 부산교회개혁실천연대, 부천이음교회, 복음과상황 대구모임, 사랑누리교회, 사회적협동조합 희년, 대구새삶교회, 성서 대구, 수원성교회 사회환경선교부, 서울꿈이있는교회, 실로암선교회, 생명의 망잇기협회, 십자가로교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천내일을여는집, 예장통합 광주노회 인권위원회, 전곡사랑교회, 전북기독행동, 종교개혁오백주년기념교회, 카타콤교회, 칼빈신학연구소, 크리스천리딩클럽, 평신도신앙실천운동, 한국그리스도교일치포럼,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한국칼뱅아카데미 평생교육원, 하늘깊은샘교회, 대구하늘씨앗교회, 해인교회, The1904, SFC총동문회 영역운동본, Wild Flower Global Youth.